

이재명 본선 직행 눈앞... "원팀으로 대선 승리"

2차 슈퍼위크서 60% 육박 '파죽지세'
인천·부울경·제주도 과반 넘게 압승
경기·서울 앞두고 매직넘버 17만표 남겨
이낙연 역전 어려워... 사실상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서울지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마무리된 2차 슈퍼위크까지 누적 득표율 54.9%를 기록하며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본선 직행의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차 슈퍼위크에서도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서 결선 투표를 통한 역전의 드라마 연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선거위가 이날 오후 발표한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이 지사는 58.1%(17만2237표)를 얻어 이낙연 전 대표(33.4%·9만9140표)의 추격을 돌려세우고 '대세론'에 쐬기를 박았다. 58.1%의 득표율은 1차 슈퍼위크(51%)보다 높은 뿐만 아니라 지난달 4일 순회경선이 시작된 이후 이 지사가 확보한 최고 수치다.

이 지사는 이날 2차 선거인단 개표에 앞서 발표된 인천 경선에서도 53.8%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압승했다.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4.9%, 누적 득표수는 54만5000표로 이 전 대표(34만1076표)와의 격차는 20만 표 이상 벌어졌다. 이에 따라 경기 경선(9일·16만4508명)과 서울 경선(10일·14만4216명), 3차 선거인단 투표(10일·30만5780명)에서 이 지사는 42%(17만여 표)대 이상의 득표율만 확보하면 결선투표 없이 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 지사가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앞세운 야권의 대대적 공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본선 경쟁력과 대안 부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대표는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33.48%(9만9140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는데 그쳐 이 지사와의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 전 대표가 2차 슈퍼위크에서도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면서 막판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전 대표의 누적 득표율은 34.33%(34만1076표)를 기록했다.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82%(1만7323표)로 3위를, 박용진 의원은 2.53%(7505표)로 4위를 차지했다.

지했다. 추 전 장관의 누적 득표율은 9.14%(9만858표), 박 의원의 누적 득표율은 1.63%(1만6185표)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진영에서는 2차 슈퍼위크의 기세를 몰아 오는 9일 '안방'에서 치르는 경기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10일 치러지는 서울 경선과 3차 슈퍼위크에서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압도적 지지로 본선에 직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 캠프에서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확보한 57%의 누적 득표율을 넘어선다는 계획이다. 압도적 득표율을 얻을수록 경선의 갈등을 봉합하고 당내 통합을 통한 '원팀'의 동력

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진영에서는 현실적으로 역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지막 순회 경선과 3차 슈퍼위크의 선거인단 규모가 61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 본선에 직행한다고 해도 상당한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대선의 최대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당내 갈등을 극복하고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차기 대선이 접전 양상을 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민심의 결집 그리고 영남에서의 40%대 이상의 지지율 확보도 관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3차 슈퍼위크가 남아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당내 통합과 진보진영 결집, 중도층 공략, 호남 민심 결집, 영남에서의 40% 이상의 지지율 확보 등 민주당 주자가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남북, 연락채널 55일 만에 복원 연락사무소·군통신선 정상통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4일 다시 복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알렸다. 군 관계자 역시 같은 시각에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남북 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건 5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 오후부터 다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아 왔다.

통일부는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남북 간 대화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말 북측에 공식 제안한 비대면 영상회의의 시스템 구축 문제부터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연락선 복원을 예고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남북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시다 일본 총리 선출...내각 아베 측근 대거 포진

31일 4년만에 총선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4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오후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총리 지명 선거를 잇따라 열고 과반의 찬성으로 기시다를 제100대 총리로 선출했다. 기시다는 아베 정권 시절 연속으로 약 4년 8개월 간 의무상을 지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합의의 당사자다. 역사 문제는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임기가 이날 21일 만료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기시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 투표를 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복수의 일본 언론이 여당 간부들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신임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재개발사업 수사 확대 '초비상' ▶6면

굿모닝 예향-광주전남우리가족부르기 ▶18·19면

시퍼퍼스, 베스트 멤버를 찾아라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메타그린 골드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오셀룰로스의 유기능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